홍길동이 부러운 이유

(요2:1~5)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홍길동이 부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홍길동이 부러운 이유'
여러분, 홍길동의 평생에 고민과 괴로움과 한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홍길동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 대단히 심오한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시대에 가질 수 있었던 그냥 꿈이지요.
쉽게 말하면 공자와 맹자를 배우고 익혀서 수신을 하고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신양명의 길, 소위 말해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 홍길동의 꿈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여 공자님과 맹자님을 본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 인격이 군자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齊家)에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가에서 스톱이 돼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수신(修身)을 한들 제가가 되겠으며, 제가가 되지 못하는 바에는, 어찌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한이 맺혀서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한이 맺혔던 이 홍길동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상향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나 만날 때마다 응어리가 생기는 본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참석하셨던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보고를 하시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성경에서도 계속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3절에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렇게 계속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빼 놓으면, 성경 전체를 통 털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성인이 된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앞에 와 계신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 말고는 대화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대화하시는 첫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도 You, You 해대는 서양 사람들, 이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좀 변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여자'가 '귀내'인데 영어로는 women, 그런데 여자에 대한 극존칭인 '귀나이'라고 했다. 왕후를 '귀나이'라고 부르던지, 아내를 부를 때 굉장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다정하게 부를 때 '귀나이'라 그런다.
그런데 왕후를 부를 때 '귀나이'라 한다고 해도 뭐 어머니를 그렇게 부릅니까?
제가 제 어머니를 왕후를 부를 때처럼, 여왕폐하 만세 그럴 때처럼 뭐 폐하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first lady를 부를 때 우리가 붙이는 것처럼 아무개 여사라고 부른다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를 부르는데 무슨,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담고 아내를 부를 때 '귀나이' 그러는 것처럼, 또 아니 어머니가 아내입니까? 그걸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학자들도,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참, 너무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쌀쌀해 보이고, 도저히 예의를 갖춘 호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여자여!' 라고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왜 상관이 없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 가야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지는 것이고, 일단은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믿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고,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저씨' 라고 불러야 되지요 뭐.
그리고 아들과 딸은 뭐라고 불러요?
'어이~ 학생!' 내지는, 대학교까지 졸업했으면 뭐라고 불러요? '어이~ 총각' 딸은 '어이~ 아가씨, 아가씨 이리로 와봐'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거치면서 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하게 되는 일들을,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미 다 하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어질 때 해야 되는 일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 말씀의 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 이겁니다.
신앙인이 되면 이렇게 모든 관계의 호칭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족관계의 호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이 바뀐 것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관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다.
이것은 요한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가족이던 아니면 이웃이든 친구이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내게 요구가 주어지게 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에 대한 요청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남남.
처음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 소리를 크게 해놓아서 옆에서 다 들려요, 어떤 아가씨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가씨하고 앞에 있는 남자가 전화를 해도, 내가 무슨 누구야? 뭐 물어볼 권리도 없고, 물어볼 자격도 없고, 왜 여자하고 전화를 하느냐고, 다른 여자한테 시선을 두지 말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남이,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두 달 지나고 한 6개월쯤 지나게 됩니다.
6개월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한테 전화 온 게 분명하면 '누구야?' 하고 따집니다.
밝히라는 얘기에요.
어느 여자랑 얘기 했는지를 밝혀야 될 의무가 내가 생겨버립니다, 6개월 정도 사귀게 되면.

아! 묘한 거죠, 완전히 남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른 여자한테 시선을 안 주고, 오직 그냥 그대만 내가 바라볼게!' 그렇게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묘해요. 완전히 남남이에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만나기 전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지냈다가, 아니~ 아침 9 to 5, 요새 뭐 미국이 9 to 5이지요, 우리나라는 9 to 9인가요?
그~ 긴긴 시간 나가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다~ 갖다 줍니다, 아내한테.
이게 무슨 관계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벌어 갖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만큼 벌어 왔으니까 자 잘 써~ 응?' '아유~ 수고했네! 우리 신랑!'
어~ 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완전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을 휙~ 던져 놓습니다. 아니 누가 내 냄새나는 양말을 빨아요, 도대체.
아내가 빨아줍니다.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 가지고 '아 이 잔치가 계속 기쁘고 흥이 끊어지지 않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기쁨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이 되는 재료가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 어떡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은 나에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도 책임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이 요구한다고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 때 움직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라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이 행동하셔야 될 때는, 액션을 취하게 될 때는, 아버지가 '액션!' 할 때만, 액션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확대하면, 어머니가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부딪치는 모든 상황들.
뉴스에서는 난리입니다, 지금 뭐 경제가 불황이다 어떻다, 앞으로 무슨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북이 로켓을 쏴 올렸기 때문에 이 안보문제가 위기에 처해졌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별의 별 말을 다 해도, 그 상황은 내게 어떤 행동과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저씨가 돼 버리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의 행동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아버지가 어떤 요청을 하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관계와 책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자식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법을 따르면, 아들아이가 '아빠 나 돈 좀 줘 자전거 사게' 이렇게 얘기할 때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은 신앙입니까?
'어이~ 학생, 내가 누구인데 자네에게 돈을 주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학생 자네에게 돈 주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왜 자네한테 돈을 줘야 되나?'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업가들 다 난리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맞추어서 행동하느라고.
근데 나는 '어이~ 상황아,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되려면 되고, 경기가 좋은 상황으로 되려면 되고, 좋은 상황이 되던 나쁜 상황이 되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관장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액션!'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상황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이젠 꽤 여럿 됩니다, 이 한국 땅에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선 골을 넣느냐 마느냐에 관심은 두 번째이고, 신문에 보면 맨날 그 얘기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 지성 선수라 그러면, 박 지성 선수가 뭐 첼시와의 경기에서 주전으로 발탁이 될 거냐 말 거냐,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첼시와 맨유가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박 지성 선수 어머니가 경기장에 갔습니다.
박 지성 선수 앉아있는 바로 뒤에 있어요.
근데 박 지성 선수가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보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아 나가 뛰어 나가 뛰어~, 너희 팀이 지금 불리하잖아 나가 뛰어 빨리 나가, 네가 산소탱크로 막~ 뛰어서 온 운동장을 왔다 갔다 뛰어야지 겨우 이길 것 같은데 왜 거기 앉아있냐? 빨리 나가 뛰어 나가 뛰어!' 그래요.
그럼 박 지성선수가 뭐라 그래요? '아이 엄마~ 내가 어떻게 나가 뛰어, 감독님이 나가라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뛰어' 이거에요.
적어도 축구장에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와 가지고 박 지성한테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요.
박 지성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라' 그래도 박 지성은 그 말 듣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 지성이 아는 모~든 사람이 나가지 말라 그래도, 감독 한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라 이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어이~ 학생'이고, '어이~ 아가씨' 아니면 '어이~총각'이라 이겁니다.
길 가는 아가씨 때문에 내가 행동할 이유는 없어요, 길 가는 총각 때문에 내가 행동할 이유는 없지요, 동네 아저씨 때문에 내가 행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란 말입니다.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란 얘기에요.

하나님이 ‘액션~’ 하지 않으면, 남편을 향해서 행동하는 거는, 감독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운동장에 들어가서 경기시합을 하겠다고 뛰어든 박 지성선수 꼴 난다 이겁니다.
비유로 하는 얘기에요.
감독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감독이 허락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허락하면 부심이 번호 쓴 판을 들고 몇 번 선수 나오고 몇 번 선수 들어간다는 걸 주심에게 알려야,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가 교체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다 빼 버리고, 그냥 내가 뛰어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뒤에서 뛰어 들어 가랜다고, ‘난 어머니 말에 순종해야지, 아빠 말에 순종해야지’ 하고 박 지성 선수가 뛰어 갈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축구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고, 자식이 오라 그러면 뛰어 들어가고, 이런 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 애가 이렇게 키워선 안 되겠다고 내가 뛰어 들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축구장에 뛰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All stop 이에요 All stop, 그렇게 되면.
뭐가 All stop 입니까?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이를 사랑해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은 All stop 되는 겁니다, 내가 끼어 드니까 자꾸.
그러면 어떻게 일상적으로까지, 이런 홍길동에게 있어서 한이 맺혔던 일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또 이 말씀 듣고 진짜 아버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그러실 분은 없겠지요?
지금 주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지니자는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의 행동이 눈앞에 지금 곧바로 리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나의 리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간절한 여망을 보면서도, 박 지성 선수가 감독의 말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가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이 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감독이 가라 하면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액션’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마음가짐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

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내 자식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내 마음에),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액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들리려면, 십자가로 내 아내와 남편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지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죽은 자이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살수록, 자식을 향하여 살던 마음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래서 자식에게 쏟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갔던 마음이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실 미션이 있을 때, 내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죽을수록, 십자가에서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모든 십자가 때문에 죽게 된 관계의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은 내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요청을 하면, 내 아들인 예수는 뭐 뭐라고 대답을 맨 처음엔 뻔대다가도 반드시 내 말대로 하더라,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안 거에요 마리아도.
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 예수의 말은, 지금 하늘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을 마리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게 될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 '액션'하므로 하는 행동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형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모든 행동에 이유가 되시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홍길동의 그 상태를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가짐으로 갖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게 되셔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미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머니를 향해,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식도 할 수 없는 효도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션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알량한 나의 사랑으로 책임진다,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미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